

북한의 국어학과 현실과의 관계*

韓 東 完

- I. 들어가기
- II. 철자법 규정의 변천 및 정립과정
- III. 말다듬기 운동의 전개 및 정착 과정
- IV. 문화어 제정의 경위 및 정착과정
- V. 사전편찬 작업의 전개과정
- VI. 결론

I. 들어가기

북한 국어학의 전개 과정은 4기로 대별되는데, 이 과정은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의 제정과 같은 언어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해방이후 「조선어철자법」의 공포가 이루어지기 이전을 제1기(1945~1953)라고 한다면, 제2기(1954~1966)는 「조선어철자법」 제정 이래 문화어 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이며, 제3기(1966~1976)는 문화어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이고, 제4기(1976~)는 『문화어규범집』에 기초한 문화어운동의 정착 시기라 할 수 있다.(고영근 1988 등 참조).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북한의 국어학 체계가 시기별로 보이는 시차성에 대해서는 일차연도의 작업에서 이미 개관한 바 있다.¹⁾ 본연구는

국어학의 전개 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시차성이 북한의 철자법, 말다듬기 운동, 문화어 운동, 사전 편찬 등과 같은 언어 생활 내지는 언어 현실의 규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규범 문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모·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차연도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국어학 체계는 비록 시기를 달리 하더라도 일관되게 언어를 혁명의 도구로 보고 있는 바탕 위에서 성립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어학 체계가 그러할진대, 북한의 언어규범 내지는 언어정책적 작업은 남한의 언어정책이 거의 무정책에 가깝게 방치되어 온 것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정치 체제 완성의 문제와 관련될 정도의 상당한 비중을 갖고 전개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국어학 체계가 후대로 나아올수록 규범 언어학의 성격을 강화했던 것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언어 정책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점차 규범성을 강제해 왔으리라 믿어진다.

II. 철자법 규정의 변천 및 정립과정

북한은 그들의 정부 수립 이전인 1946년 9월부터 철자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이 철자법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4년 9월 '조선어 철자

* 이 논문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 완성되었음.

- 1) 본 연구는 '남과 북 : 북한의 학문 체계(인문사회과학편)'라는 제목으로 6개 학문 분야에서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국어학 분야의 2차연도 작업에 해당된다. 국어학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연도별 과제는 1) 북한의 국어학 체계의 개관, 2) 북한에서의 국어학 이론과 현실과의 관계, 3) 남북한 국어학 체계의 비교 및 통합 방안 등이다.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기 이전까지 북한의 언어규범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1948년 1월 「조선어 신철자법」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그 시행이 전면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조선어 신철자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형태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항에 있어서 표음주의에 빠져 버린 점을 비판하고,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한자어의 어두음 표기에 있어서 '양심(良心)', '여자(女子)' 등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발음되지 않는 'ㄹ', 'ㄴ'이라 하더라도 그 형태를 고정하기 위하여²⁾ '량심', '녀자'와 같이 적는 표기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철자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新文字 여섯 자의 제정을 지적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³⁾, 이 역시 형태주의의 일관된 대원칙 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새로운 문자들은 주로 'ㅂ' 불규칙, 'ㄷ' 불규칙, 'ㅅ' 불규칙, 'ㄹ' 불규칙 등과 같은 용언의 불규칙 현상에서 보이는 어형들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가령 'ㄷ' 불규칙 용언인 '걷다(步)' 동사의 활용형을 '걷다, 걷고; 걸어서, 걸으니'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형태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신문자 'ㄷ'을 사용하여 '꺄다, 꺄고; 꺄어서, 꺄으니' 등으로 적자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어간 형태부의 고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철자법에서 사이표를 새로 설정한 것도 형태주의의 일관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이표(·)는 '문·간', '꽃·잎' 등에서 보듯이, 주로 이른바 사이시옷 현상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형태주의를 일관되게 지킨다는 것은 음성 언어의 특성상 하나의 理想에 그치고 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형태주의의 대전제 하에 신문자의 제정을 주창하였지만, 이는 형태부의 고정이라는 점에서

2) 곧 '良'과 '女'의 한자음은 '불량(不良)'과 '남녀(男女)'에서 보듯이 '량'과 '녀'이므로 실제 발음과는 상관 없이 어두에서도 '량'과 '녀'으로 고정시키겠다는 것이다.

3) 「조선어 신철자법」의 신문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북한의 문자개혁에 관한 연구(고영근, 주시경학보 12, 1993.12.)」를 참조할 것.

는 이상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 발음과의 괴리가 극심하다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자기 音價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가상적 문자를 창제한 것은, 마치 1970년대 이후의 서구 생성음운이론의 추상적인 기저형의 대두를 예견이라도 한 듯하다는 점에서, 일반언어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한 先見이라 할 수 있지만, 철자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조선어 신철자법」은 정부 차원의 규범성이나 강제성도 없었거니와, 그 실제에 있어서도 비현실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실용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되고 마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다.⁴⁾

북한의 철자법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에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새로운 시기로 접어든다. 이 철자법은 종전에 사용해 오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골격으로 하여 이에 일정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1948년의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새로이 개정된 것을 일부 수용하는 양상도 보인다.

「조선어 철자법」의 구성은 「형태주의 원칙, 표기 규칙, 표준어 규정, 가로쓰기」 등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총칙에 이어서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 「어간과 토의 표기」, 「합성어의 표기」, 「접두사와 어근의 표기」, 「어근과 접미사의 표기」, 「표준발음법 및 표준어와 관련된 철자법」, 「띄여쓰기」, 「문장부호」 등의 규정, 그리고 용례색인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철자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자모는 40자모로 규정하였는데,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비해 자모 수를 늘린 것이지만,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제정된 6개의 신자모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한글맞춤법통일안」의 24자모에다가 겹자음자 및 겹모음자의 복합자를 포함한 것이었다. 또한 자모의 명칭에 있어서도 「기옥, 니은, 디은,

4) 물론 이 철자법이 제안된 이후 얼마지 않아 한국동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철자법이 김두봉 등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들의 세력이 한국전쟁 이후 급감되었기 때문에 그 실제적 효용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옷' 등과 같이 관례와는 달리 개정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그리고 어두한자음 'ㄹ, ㄴ'의 경우는 그 구개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예: 량심(良心), 라팔(喇叭)), 이 점은 '조선어 신철자법'과 일치할 이루는 것이다. 또한 합성어의 표기에서 사이표를 둔 것도 '조선어 신철자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이른바 북한 철자법사의 제3기는 1964년 1월 3일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조선말 규범집』(1966)이 공포됨으로써 그 막을 열게 된다. 이 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의 4부에 걸친 언어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맞춤법 편은 총칙과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형태부의 적기', '어간과 토의 적기', '합성어의 적기',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어근과 접미사의 적기', '한자어의 적기' 등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철자법이 「조선어 철자법」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사이표를 모두 없앤 점이며, 또한 한자음에서의 'ㄹ'음의 구개음화를 일부 인정하였다는 점(예: 라팔(喇叭) → 나팔)이다.

문화어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987년 5월 제정되고 1988년 2월 발행된 『조선말 규범집』은 북한 철자법사의 제4기를 열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철자법 규정은 『조선말 규범집』(1966)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있다. 철자법 부분은 본문 7장 27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제1장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2장 '형태부의 적기',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4장 '합친말의 적기', 제5장 '앞불이와 말뿌리의 적기', 제6장 '말뿌리와 뒤불이의 적기' 제7장 '한자말의 적기'로 되어 있다.

이 『조선말 규범집』의 가장 큰 특징으로 종전의 철자법 규정에서 사용되던 한자어를 상당 부분 고유어로 바꾸어 놓았음을 들 수 있다.⁵⁾ 물

5) 몇 예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 → 말줄기', '어근 → 말뿌리', '접두사 →

론 이러한 변화는 북한 국어학의 제4시기를 연 『조선문화어문법 규범』(1977), 그리고 뒤이어 나온 『조선문화어문법』(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등에서 보이는 당시 북한 국어학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상에서 북한의 철자법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남한이 해방 이전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여 몇 차례 부분적 수정을 가했지만 이는 언어 현실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언어계획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 철자법은 이질화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두 철자법의 가장 심각한 이질화는 사잇소리 현상과 두음법칙 현상의 표기 반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잇소리 현상과 두음법칙 현상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두 현상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내세운 형태주의의 대원칙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철자법의 이질화는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III. 말다듬기 운동의 전개 및 정착 과정

북한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대대적인 문맹퇴치 운동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다듬기 운동이 전개되어 나간다⁶⁾. 이 운동은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회를 순우리말로

앞불이', '절미사 → 뒤불이', '움절 → 소리마디', '설측음 → 혀옆소리', '폐쇄음 → 닫김소리', '동화현상 → 닻기현상' 등이다.

6)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은 말다듬기를 “민족어의 주체적발전의 요구에 맞게 고유어에 기초하여 말마디를 다듬고 그 체계를 바로잡는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바꾸는 작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⁷⁾ 이는 남한의 국어순화운동과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남한이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반면에, 북한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의지를 통해 정책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남한의 국어순화운동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정치정략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은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상 어려운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그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운동의 이름 그 자체가 아이러니컬하게도 國語醇化運動, 곧 어려운 한자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미 실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4년 1월 3일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라는 김일성의 교시와 1966년 5월 14일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교시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언어정책 및 어문규범은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된다.⁸⁾ 특히 이 교시 이후로 전개되기 시작한 문화어 운동은 말다듬기 운동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 말다듬기 운동의 결과가 그대로 문화어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말다듬기의 방식은 ‘바뀌고치기, 찾아가치기, 살려고치기, 만들어고치기’의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바뀌고치기’는 고유어와 동의 관계에 있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뀌 고치는 것이며(예: 桑田 → 뽕밭, 石橋 →

7) 김일성의 교시에 나타난 말다듬기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인용에서 쉽게 확인된다. 한자어에 대해서는 “리조봉건시기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심하여 그 나라의 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중국식한자말을 많이 쓰고있습니다.”라는 언급이 있고, 일본어의 잔재에 대해서는 “지난날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 다음에는 일본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가운데는 고쳐야 할 일본식말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언급이 있다.

8) 북한은 1966년 이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과학연구소 산하 18개 전문용어분과위원회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전당적, 전국가적 사업으로 본격적인 말다듬기를 추진하였다.

들다리), ‘찾아고치기’는 묻혀 있는 말⁹⁾이나 방언에서 좋은 고유어를 찾아내어 외래적 어휘를 다듬는 것이며¹⁰⁾, ‘살려고치기’는 소극화된 고유어 요소를 이용하거나 고유어의 원래의 뜻을 넓힘으로써, 그리고 ‘만들 어고치기’는 새로운 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넣음으로써 외래적 어휘를 다듬는 것이다.

말다듬기의 대상은 외래어이지만, 그 주된 대상은 역시 수천년에 걸친 교섭의 결과 우리 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한자어이다.¹¹⁾ 이는 『현대조선말사전』(1981)을 분석하여 통계를 낸 김창섭(1991)의 연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김창섭(1991:13)에 따르면, 북한의 말다듬기는 96%가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말다듬기 운동은 크게는 어휘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의 어휘정리』(박상훈·리근영·고신숙, 사회과학출판사, 1986)에서는 어휘 정리의 대상을 정리할 대상어휘, 눌러두고 쓸 어휘, 보류되는 어휘 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리할 대상어휘는 가) 고유어와 뜻같은 관계에 있는 외래적 어휘(예: 桑田 → 뽕밭), 說諭하다 → 타이르다), 나) 어렵고 우리 말답지 않게 이루어진 한자말(예: 複芽, 芽接刀), 다) 사상의식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어휘들(예: 만세교)로 나뉜다.

다음으로 눌러두고 쓸 어휘에는 토착화된 한자말과 세계공통적인 어휘가 있는데, 가) 토착화된 한자말을 다시 나눠서 이에는 ① 단어의 말

9) ‘묻혀 있는 말’ 또는 ‘잠긴 말’은 언중들 사이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사전에는 오르지 못한, 곧 公認받지 못한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창섭 1991:6).

10) 김창섭(1991:13)은 방언을 이용하여 다듬은 말이 약 2%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1) 물론 “이미 우리말로 완전히 되어버린 한자어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방>, <학교>, <과학기술>, <삼각형>과 같은 말은 다 우리말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구태여 <배움집>으로, <삼각형>을 세모꼴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20페이지)라는 인용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 말로 굳어진 한자어는 제외하고 있다.

소리에서나 뜻에서 한자말의 본래의 것과 완전히 달라진 것(예: 천지 - '하늘땅'이라는 뜻 이외에 '무척 많은 상태'의 뜻을 가짐), ② 언어생활에서 한자말이라는 것을 거의 의식할 수 없게 된 것들(예: 수염, 비단, 약, 양말, 별안간, 여전하다, 골몰하다 등), ③ 어휘론적으로 한자말의 특성이 명확하고 따라서 언어생활에서 그것이 한자말이라는 것이 의식되지만 역시 고유어와 같은 정도로 생활적인 한자어휘들(예: 회의, 사업, 압력, 공업 등)의 3 유형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나) 세계공통적인 어휘들의 예로 '포르테, 필립, 텔레비존, 아그레망, 로케트, 프로그램' 등을 들고 있다. 후자의 어휘들은 어떤 개별적 나라나 민족의 언어적 요소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서 공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광범한 국제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이들을 정리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정리에서 보류되는 어휘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웅당 다듬어져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눌러두고 쓸 부류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로는 다듬을 말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¹²⁾

1966년 이래 전당적, 전국가적 사업으로 지속되어 온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은 1986년 10월에 간행된 『다듬은 말』(국어사정위원회,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곧 그 동안 다듬어 왔던 5만 개의 말 가운데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보급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토록 하는 대조처를 취한 것이다. 결국 인위적인 규범으로 언어 생활을 강제하는 것의 한계를 자인한 셈인데, 그 내용에는 우선 언어생활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 폐기한 경우와 다듬은 세계 공통적 어휘를 환원한 경우

12) 이러한 언급은 북한 당국이 말다듬기 초기 단계에서 섬멸전의 방식으로 단번에 이룩하려는 과욕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곧 후술되듯이 5만여의 다듬은 말 가운데 절반 이상을 폐기하는 것과는 상통하는 언급이라고 하겠다.

(예: 필름, 로켓), 의미의 폭이 달라 각립시켜 되살린 경우(예: 로안, 런닝샤쓰)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의 말다듬기 상황은 1992년에 출간된 『조선말 대사전』의 검토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말 대사전』이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다듬은 말과 함께 본래말도 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이전의 『현대조선말사전』(1981)이나 『조선문화어사전』(1989) 등이 다듬기 이전의 본래말은 실지 않고 다듬은 말만을 표제어로 삼았던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말다듬기 운동을 언중의 언어 생활에 인위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당적, 전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된 말다듬기 운동은 1986년을 기점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한다. 말다듬기 운동과 같은 언어외적인 작업이 단기간에 걸쳐 의욕적으로 완성되고 정착될 수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그렇다고 말다듬기 운동의 성과가 형편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휘론 분야의 충위는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의 다른 언어 충위와는 달리 언어외적인 압력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십년 간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말다듬기 운동은 북한의 실제 언어 생활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IV. 문화어 제정의 경위 및 정착과정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에서의 말다듬기 운동은 1964년, 1966년의 두 차례에 걸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문화어가 규정된 이후 가속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 등의 다른 언어정책들도 모두 문화어의 제정 및 정착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에 문

화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로 정착되어 갔는지를 간략하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³⁾

우선 1966년의 김일성 교시인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에서 ‘문화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라고 하는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

위 인용에서 보듯이 문화어란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킨 우리말”로 정의될 수 있다. 사실상, 해방 직후부터 이미 북한의 어문 규범이 남한의 그것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범의 대상이 되는 언어는 어디까지나 서울 말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였

13)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은 문화어를 “사회주의 건설시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져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풍부하게 발전한 민족어.(p.356)”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문화어에 대한 일반적 정의로서, 이에 따르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의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규범화된 언어는 모두 문화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문화어를 새로이 제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말을 평양말로 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이 갖는 남한과의 차별성을 명백히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더 나아가서는 남한보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성과 우월성 강조가 북한 정권의 주체성 강조와 맞물리게 됨은 당연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문화어라는 용어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제시대의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그리고 민족어 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뿌리가 깊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주체철학이 비롯되는 시점으로부터 주체의 언어이론이 등장하고 문화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고 하는 것이 보다 순리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어의 대두와 더불어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어 나가는 이른바 말다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도 주체의 언어사상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문화어 운동은 말다듬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것과 더불어 1968년에 『문화어학습』지가 창간되는 것으로부터 본격화되어 나간다. 이 잡지는 각 호마다 첫머리에 김일성 주체언어이론과 관련되어 문화어를 더욱더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어 규정에 대한 지식, 생활과 언어, 물음과 대답 등의 내용이 나오며, 또한 “어휘수첩”이란 이름 아래 대중들에게 알려야 할 다듬은 말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¹⁴⁾ 이처럼 규범적, 계몽적, 대중적 성격을 띤 『문화어학습』지의 등장과 보급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어 운동이 일상 언어 생활에 침투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인위적 규범의 강제에 한계

14) 이 잡지의 등장과 보급이 계속되면서 『조선어학』이나 『어문연구』와 같은 전문성을 띤 어학 계통의 잡지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를 자인하고 5만여의 다듬은 말 가운데 절반 가량을 폐기한 『다듬은 말』(1986)이 간행되고 『조선말 규범집』(1987)이 공포되면서부터 언어규범에 있어서도 무리한 규정을 피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새 규범집의 발음 규정의 측면을 살펴보면, 1966년의 『조선말 규범집』에서 ‘표준발음법’이라고 하였던 것은 ‘문화어발음법’이라 수정하였고 그 총칙에서 “조선말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종전의 발음 규정을 수정하여 현실적 발음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는 이중모음 ‘의’가 위치에 따라 [ㅣ] 또는 [꺠]로 발음되는 것을 허용한 것(예: 띄우다[띠우다], 결의문[겨리문], 혁명의[혁명에])과¹⁵⁾ 사잇소리의 발음을 허용한 것(예: 내과[내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자에서 ‘의’의 현실 발음 허용은 북한 국어학 제4기의 문법서인 『조선문화어문법』(1979)에서 ‘의’가 “일부 지방에서는 ‘ㅣ’로 어떤 지방에서는 ‘ㅡ’로 발음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꺠’처럼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p.30)고 기술해 놓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상에서 문화어 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략히 살펴보았지만, 이 운동이 정착되면 될수록 표준어와 문화어의 괴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만큼 남북한 언어 규범 내지는 언어 생활의 이질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철자법이나 말다듬기 운동과는 달리 문화어는 용어의 정의 그 자체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언어 규범 내지는 생활의 이질화를 극복하는데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15) 『조선문화어문법』(1979)

16) 남한의 표준발음법과 북한의 문화어발음법 규정의 비교·대조에 대해서는 “표준발음법”과 “문화어발음법” 규정”(권인한, 『새국어생활』 3-1, 1993)을 참조할 것.

V. 사전편찬 작업의 전개과정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언어정책은 규범적, 계몽적, 대중적, 선동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음은 앞서의 기술에서도 확인하였거니와, 이러한 성격에 있어서 사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백과전서식 사전과 언어학적 사전으로 나뉘고, 언어학적 사전은 다른 나라말끼리의 대역사전과 한 나라 말의 주석 사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주석 사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주석 사전에 있어서도 규범적 성격을 띤 규범주석사전(이른바 통제사전)과 그렇지 않은 참고주석사전(이른바 참고사전)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규범주석사전, 곧 통제사전이라는 용어는 주목할 만하다. '통제'라는 용어 그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등의 편찬 작업도 언어생활의 통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규범적 언어관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경(1965)은 “새로운 조선말사전 편찬을 위한 몇가지 문제”(『조선어학』 1965년 4호)라는 논문에서 통제사전과 참고사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대비하고 있다.¹⁷⁾

(표는 다음 단락에 붙임)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해방 직후부터 한자폐지 정책 및 말다듬기 운동 등을 포함한 언어정책을 의욕적으로 전개해 나간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정책적 결과물을 언어 생활에 고착시키려는 의도로 사전 편찬 사업을 전국가적 사업으로 전개해 나갔다. 『표준말 맞춤법 사전』이 1947년 3월 간행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주석사전은 1956년의 『조선어소사전』에서 비롯된다. 그 이후 『조선말사전』(1962), 『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조선말사전』(제2판)(1981) 등이

17) “북한의 문화어에 대한 연구”(이승욱, 동아연구 18집, 1989)에서 재인용함.

출간되었고, 1992년에 드디어 33만이라는 실로 방대한 양의 어휘를 표제어로 올린 『조선말대사전』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통제사전	참고사전
(1) 규범화된 현대표준어의 어휘를 체계로서 반영. (2) 일정한 시기의 사회집단의 단일한 언어의식에 그 기초를 둠. (3) 언어 사용을 규범화하고 통제하는데 복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 보도록 하는 이외에 일정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는데 또는 주어진 문맥에서 필요한 단어를 찾아내도록 하는데 복무.	(1)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그 언어의 여러 층의 언어를 非體系的으로 반영. (2) 일정한 시기의 사회집단의 단일한 언어의식에 그 기초를 두지 않음. (3)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복무.

해방 이후부터 대사전 편찬의 의욕을 보여온 북한은 대사전 편찬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우선 『조선어소사전』을 1956년에 간행했다.¹⁸⁾ 이 사전의 머리말에서는 그 편찬 목적을 “이 《조선어소사전》은 현대

18) 이러한 사정은 『조선말사전』(1962)의 머리말의 다음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해방 후 1948년 10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새로운 민족 문화를 건설하며 조선어를 더 한층 규범화함에 절실히 필요한 주석 사전을 시급히 편찬할 것을 언어학자들에게 위임하였다.
 이리하여 당시의 《조선 어문 연구회》에서 약 10만의 어휘를 실은 사전을 편찬하여 인쇄에 부쳤으나,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당들이 조선 인민에게 강요한 야수적인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인쇄는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1955년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에서는 대중적인 조선어 표준어 주석 사전 편찬에 대한 사회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선 단권짜리 《조선어 소사전》을 출판하였다.”

조선어 표준어의 연구와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의 언어 배양을 제고하며, 현대 조선어 표준어를 가일층 규범화할 것을 기본 사명으로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어 철자법』(1954)의 규정에 따라 편찬된 이 사전은 종전의 사전들에서는 볼 수 없는, 해방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 따라 변모된 북한의 정치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어휘들을 담고 있다. 어휘 목록에 있어서 ‘로동당, 인민공화국, 해방탑’ 등이 올림말로 올라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단어 주석에 있어서도 ‘자본가’를 종전에 “자본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조선어사전(문세영)』) 등과 같이 정의한 것과는 달리 “부르조아사회의 지배 계급의 대표자, 즉 고용로동을 착취하는 자본의 소유자로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이익을 배반하는 원수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주체 사상이나 문화어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60년부터 제1권이 간행되기 시작하여 2년만인 1962년에 마지막 제6권까지 완간한 『조선말사전』은 약 19만의 어휘를 올림말로 실고 있다. 이 사전의 머리말에는 이 사전이 “과학적인 주석사전으로서의 기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 있는 한편으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규범적인 주석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이 들어 있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이 사전이 규범적인 통제사전의 성격보다는 참고주석사전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러두기에서 “사회적 요구의 실정을 참작하여 널리 쓰이는 각종의 역사어와 함께 일부 고어, 방언들도 수록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나 後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편찬자들은 이 사전이 가지는 소백과 사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과학, 기술, 예술 등 조선 인민의 문화 창조 생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비교적 흔히 쓰이는 각종 전문어들을 되도록 풍부히 수록하는 동시에, 그 의미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역시 이 사전의 규범적 성격이 아직은 무르익지 못함을 짐작케 한다.

1964년과 1966년의 김일성 교시 이후 주체사상과 이에 따른 주체언어이론, 문화어운동 등이 강화되면서 본격적인 통제사전이 출현하게 된다.

북한정부 창건 20주년을 맞아 1968년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은 약 5만 단어의 율림말을 싣고 있는데, 그 편찬 경위에서 “이 사전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신 역사적인 1964년 1월 3일 교시와 1966년 5월 14일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원칙에서 만든 문화어주석사전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 보듯이 그 성격이 본격적인 통제사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율림말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 성구, 속담을 뽑아서 싣는 반면에 학술용어, 전문용어, 옛말, 사투리, 고유명사는 올리지 않는 한편으로, 율림말의 뜻풀이에 있어서도 가장 일반적인 뜻을 쉬운 말로 간결하게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 정치적 성격을 띤 율림말에는 ‘★’표시를 하고 김일성의 교시를 올린 점 등을 통해 볼 때, 언어규범적 통제사전의 성격을 넘어서서 주체사상의 보급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의 『조선문화어사전』은 앞의 『현대조선말사전』을 더욱 보충하고 다듬은 것으로서, 우리말의 어휘구성에서 일어난 변화, 즉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는 체계와 문화어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사전에 고착시키기 위해 문화어 어휘를 폭넓게 실은 사전이다. 뒤이어 김일성 탄생 70돌을 기념하여 1981년에 나온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역시 『현대조선말사전』(1968)의 부족한 점을 보태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이들 사전은 김일성의 어록을 뜻풀이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며, 율림말에서도 “수령의 고전적 노작과 당문헌에 나오는 말마디”를 올리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결국 이 사전들의 편찬 시기가 후대이면 후대일수록 더욱 공고화된 주체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은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의 머리말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 뜻을 정식화하여 주신 올림말의 풀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뜻풀이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나 “올림말의 뜻과 개념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물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당성, 노동 계급성의 원칙에 철저히 서서 풀이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조선말사전』(1962)의 머리말에서 북한 당국의 숙원의 사업으로 언급된 바 있는 『조선말대사전』이 드디어 1992년 2권 2책, 33만어휘의 올림말을 갖춘 방대한 모습으로 간행되기에 이른다. 이 사전은 33만 어휘라는 엄청난 올림말을 갖추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각 어휘의 뜻풀이에 풍부한 용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전은 앞서의 통제사전적 성격의 사전들이 보여주었던 언어규범적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있는 징후를 여러 곳에서 비추고 있다. 물론 이 사전이 이전의 사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체사상의 강력한 그늘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원래 한자어인 표제어에 한자를 달고 있다든지, 다듬은 말과 더불어 본래말을 함께 싣고 있다든지, 권말에 방언과 고어를 싣고 있다든지 하는 점 등은 이전의 통제사전적 성격의 사전들과는 사뭇 다른 편찬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VI. 맺는말

이상에서, 북한의 국어학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19) 『조선말대사전』(1992)에 대해서는 그것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새국어생활』(1993) 제3권 4호를 참조할 것.

철자법의 전개 과정, 말다듬기 운동의 전개 과정, 문화어 제정의 경위 및 정착 과정 및 사전 편찬 작업의 전개 과정 등과 같은 언어규범 내지는 언어 생활적 문제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소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북한의 국어학이 갖는 규범언어학적 성격이 그 실천적인 현실 적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문화어 규정이나 사전 편찬 작업 등에 사회주의 내지는 주체사상 같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강하게 노정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편향성은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가속화시키고 그리하여 통일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화가 남북한 간의 통합을 아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니며, 일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질화를 잘 조화시키면서 통합시킨다면, 남북한 간의 국어학 체계와 그 현실적 적용이 상호 보완의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믿으며 이를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8), 남북한 언어 문자의 이질화와 극복방안 (1), 주시경학보 2.
- 고영근(1989), 남북한 언어 문자의 이질화와 극복방안 (2), 주시경학보 3.
-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고영근(1993), 북한의 문자개혁에 관한 연구, 주시경학보 12.
-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1954), 『조선어 철자법』, 평양: 과학원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1992a),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1),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2b), 『북한의 언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국어국문학회 편(1990),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 지식산업사.
- 권인한(1992a), 남북 맞춤법의 비교와 검토(1), 월간통일 6월호.
- 권인한(1992b), 남북 맞춤법의 비교와 검토(2), 월간통일 7월호.
- 권인한(1993), '표준발음법'과 '문화어발음법' 규정, 새국어생활 3-1.
- 김광해(1993), 북한판 국어사전의 올림말의 관련 어휘, 새국어생활 3-4.
- 김무림(1989), 북한의 언어 정책과 말다듬기 운동, 한국논단 4.
- 김민수(1989), 『북한의 국어연구』(중보판), 일조각.
-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녹진.
- 김민수 편저(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 김봉모(1990), 주체의 언어이론과 정책 고찰, 민족문제논총 1.
- 김창섭(1991), 북한의 '말다듬기' 이론과 '다듬은 말', 주시경학보 7.
- 김홍수(1993), 북한 사전의 다듬은 말, 새국어생활 3-4.
- 남기심·김하수(1989), 북한의 문화어, 『북한의 말과 글』(고영근 편, 을유문화사).
- 남성우·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 박건식(1989), 북한의 어휘론, 『북한의 어학혁명』(북한언어연구회 편, 백의).
- 박상훈·리근영·고신숙(1986),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사회과학 출판사.

- 북한언어연구회 편(1989), 『북한의 어학혁명』, 도서출판 백의.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81),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어휘연구실(1974), 『단어만들기 연구』,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심재기(1988), 문화어와 말다듬기, 국어생활 15.
- 안병희(1992), 남북한 맞춤법의 비교와 검토, 말과 글 50.
- 이병근(1990), 북한의 국어사전과 사전학,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국어국문학회 편, 지식산업사).
- 이병근(1993), 남북한의 사전편찬 비교, 북한연구 13.
- 이상익(1992), 북한의 어휘연구/사전편찬, 어학연구28-3.
- 이승욱(1989), 북한의 문화어에 대한 연구, 동아연구(동아대)18.
- 이승욱(1991), 북한 철자법의 체계와 변천, 동아연구(서강대)22.
- 이현복(1990), 북한의 언어와 언어 정책의 실상, 자유공론 278.
- 임홍빈(1993), 북한 사전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3-4.
- 자하어문학회 편(1990), 『북한의 조선어학』, 한신문화사.
- 전수태(1992), 북한 말다듬기의 방침과 성과, 월간통일 12월호.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 비교』, 녹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66), 『조선말 규범집』, 사회과학원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 규범집』, 사회과학원출판사.
- 조재수(1991), 북한의 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한글 213.
- 최기호(1990), 『현대조선말사전』과 북한언어정책, 『북한의 조선 어학』(자하어문학회 편, 한신문화사).
- 최호철(1988), 북한의 맞춤법, 국어생활 15.
- 허철구(1993), 남북한 국어순화의 비교, 말과 글 54.